

SK그룹, Intel과 반도체 벤처 육성

국가대표 벤처기업 선발 공모전 개최 ... 실리콘밸리서 사업화 추진

SK그룹이 Intel 등 글로벌 메이저와 공동으로 국내 벤처기업 육성에 나선다.

SK그룹은 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공동으로 국가 대표 벤처기업 선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1월27일 발표했다.

SK는 글로벌 반도체 메이저인 Intel과 스타트업 투자 전문기업 Lab IX, SK텔레콤의 미주지역 투자 자회사인 Inno Partners, 하드웨어 분야 전문 투자기획기업인 Actner Lab 등과 공동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모전은 대전 소재 사물인터넷, 웨어러블(Wearable)기기, 스마트자동차등 ICT와 에너지, 반도체 분야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11월27일부터 12월16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23일 최종 선발팀을 발표할 예정이며 Intel과 Lab IX의 해외 투자 담당자들도 벤처기업 선발 심사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발된 팀은 SK로부터 해외진출 지원금 1000만원을 받게 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해 사업화 과정을 진행한다.

황근주 SK그룹 창조경제혁신센터(CEI) 센터장은 "SK그룹은 국내는 물론 미국 현지에서도 벤처 대박 신화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글로벌기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만큼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1/27>